

'청정 무주' 전지훈련 장소 각광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의견수렴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팀, 항저우아시안게임 대비 강화훈련 중

무주군이 자전거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무주군은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팀 18명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4일간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대비 강화훈련을 통한 메달획득을 위해 마지막 집중 전지훈련을 무주군 일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장애인사이클 국가대표 훈련 모습.

이들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 유치는 무주 그라운드,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챔피언십 자전거 동호인 대회 등에서 대회를 무난하게 치렀고 무주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춘 것으로 훈련장으로써의 활용도가 높아 전지훈련장으로 명성을 알린 결과다.

특히 도로 높낮이가 분명하고 자전거 코스 지형이 훈련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로 환경을 갖춘 점도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팀이 무주를 전지훈련장으로 선택한 이유다. 이에 군은 무주가 자전거 전지훈련

지로 국제적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는 판단아래 각종 자전거 동호인 대회 유치 노력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올해 무주군 일원에서는 전국생활체육자전거대회(협의중)를 비롯해 무주 그라운드대회, 전북지사배 자전거대회, 전국장애인 사이클대회, 문체부장관기 자전거대회, 마스터즈 사이클 대회를 사실상 유치함에 따라 무주가 최적의 자전거 대회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서종열 팀장은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팀의 무주 전지훈련으로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물론 동호회원들의 연중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군은 무주가 전국을 넘어 각종 동호인 자전거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지역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앞으로는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자금 운용 모델개발 위한 다양한 의견 경청의 장 개최

장수군은 지난 4월 15일 장수군 농산물의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 운용 모델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경청의 장을 마련했다.

장수군 주요 농산물의 유통가격안정은 지역 농민의 소득은 물론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가격폭락을 상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에서는 '장수군 농특산물 유통대책 위기 관리 매뉴얼 수립'과 더불어 관련 조례와 규칙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매년 20억 원씩 100억 원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 재원을 조성 중이다.

군은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 조성으로 농가들의 최저가격 보장과 유통가격 지원 등을 통해 장수군 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수군은 적합한 사업방식 도출을 위해 지역농업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전북 및 타 시·군 사례 분석을 통해 장수형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상기후, 국제농산물시장 개방, 높은 생산비, 농산물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 고조, 소득하락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경청에 집중했다.

이날 청취회에서는 장수농협장 및 장계농협장, 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7개 읍·면별 이장협의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현재 추진 중인 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듣고 자율적인 토론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장수군 실정에 맞는 품목 결정, 사업 대상자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 읍·면 주요 소득작물 시범 사업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개혁 과정에 수공"

61 장수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하 양 부의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양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결정에 동참하며 검증의 절차에 수공의 뜻을 비추었다. 또한 다가올 경선으로 결정되는 최종 후보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빠른 꺾는 이번 공천심사 결과에 대의를 위해 정치인으로서 선언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말하며,

당락을 떠나 개인의 아쉬움을 내려놓고 결정을 수공하는 모습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와 기본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 부의장 본인은 경선의 과정을 앞두고 타 예비후보와 철저히 정책과 비전을 놓고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경선을 마치면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표선수로 지방선거의 최종 승리를 위해 합심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지자들에게 "양성빈을 믿고 응원해 주신 많은 지지자 여러분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경선이 끝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차기 군수를 뽑는 임속하지만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교육·판매 산실

무주군이 농업인들의 농가소득과 가공역량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가공 및 교육,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산실로 우뚝 서고 있다.

특히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들이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제품 생산과 상품화할 수 있는 값진 통로가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연중 생산하고 있으며,

과채 음료라인과 분말가공라인 등 70여종의 가공라인도 갖추고으로써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가소득의 지원 요소로 성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농산물 가공창업에 따른 기초 심화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농산물 가공업체 현장 컨설팅도 운영하면서 농업인들에게 농가소득을 위한 산파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 총력

무주군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아스트레노바이러스(ASF)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다.

경북 상주와 무주까지 최단거리인 약 31km에 불과함에 따라 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상황인 가운데 무주군에서도 부군수를 필두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시설 정비 설치 현황, 소독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돈농장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양돈농장은 6호 1만4,060두 정도 사육하고 있으며, 농장별 양돈농장 방역 컨설팅 지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이달 말까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방조방충, 물품반입시설, 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시설 보완에 전력을 쏟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60세 이상 4차 백신 접종 추진 본격화

진안군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군민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추진한다.

기존 진행되고 있는 4차 접종은 면역저하자 및 요양시설과 정신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접종은 60세 이상 연령층이 대상자이며,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방법은 온라인예약 또는 위탁의료기관 전화 예약, 주민센터 방문예약이 가능하다.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요일제로 운영하여 운영일에 직접 방문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구세의원(월,목,토), 김홍기의원(화,목), 마령의원(화,수,금), 마이외과의원(화,목,금), 송외과의원(월,금), 우리가정의원(화,목,토), 의료원(화,수,금), 진안의원(수,목) 등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홍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

진안군은 19일 홍삼제품 공동브랜드 '진안홍삼'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17회 짝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인삼제품 공동브랜드를 대상으로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진안홍삼이 △최초상기도 △인지도 △브랜드차별화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7개 조사항목에서 총합 급상의 금홍, 충남 진스큐, 영주시 황풍정, 경기 천경삼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진안홍삼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일곱 번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인삼 분야 전국 최고의 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평균해발 400m의 고원지대에서 생산한 4~6년근 최상급 진안수삼을 정제

하여 만드는 진안홍삼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수삼을 저온에서 증숙한 후 건조, 숙성하여 만든다. 이때 수삼 상태에서는 없던 몸에 유익하고 각종 병증에 악리작용이 뛰어난 홍삼 특유의 생리활성 성분이 생성되며, 체력증강, 노화억제, 항암작용, 항 당뇨, 간 기능증진, 중금속 해독 등 10여 종의 새로운 성분이 추가되고 수삼에 비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게 큰 특징이다.

또한 풍부한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 함량으로,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진안군은 2005년 전국유일의 홍삼특구로 지정됐다. 특히 진안군은 홍삼의 효능연구 및 제품 개발과 진안홍삼의 품질인증 전

담을 위해 2008년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홍삼 전문연구기관인 진안홍삼 연구소를 설립했다. 진안홍삼 연구소는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은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으로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홍삼가공품에 대한 유해성분 또는 중금속,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 성분검사를 위해 품질인증 사전·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012년에는 대한민국 최최이자 유일한 홍삼명인이 진안에서 배출되었고 같은 해 시행된 진안홍삼 군수품질인증제는 엄격한 품질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진안홍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높이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